

“방사능 방재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전북도의회, ‘예산 확보 지방세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

전북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안전적인 방사능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비상계획구역에 원전지점 10km에서 30km로 확대했다”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을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지원 시설에 납세자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전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원전사고 발생 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올해 3월 「지방세법(지역지원시설세)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지원시설세의 납세자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도의회 임시회 개최 18일 오후 2시 제34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진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과 의회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인 행정안전위원회에 4월3일 회부된 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정부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충과 구호소 지정 등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을 위한 재

원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차인권침해’ 논란에 법무부 발간 “오히려 특혜 수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비인권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발간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TV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수용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지급하고 의료기 사용도 허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0.08㎡(약 3.05평) 크기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 일반 수용자는 이보다 좁은 면적의 방에서 다수가 생활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감자의 공용 수감방을 박 전 대통령 독방으로 개조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서울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의로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하고 충분한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 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CNN은 전날(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은 MH그룹 관련 문건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비인권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CNN은 박 전 대통령이 열악한 시설에서 수감 중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을 계속 켜놓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구치소는 과밀수용 때문에 난리”라며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시각이 있을 정도인데 CNN은 엉뚱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뉴시스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졸업률 49% 불과

졸업자 32% 고전과 관련 없는 활동... 유성엽 위원장, “진로 확보 위해 대책 마련해야”

한국고전번역원의 전문가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 정음·고창)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출한 ‘고전번역연구원 교육원 졸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이 중도 포기하고, 졸업생 가운데 30% 이상은 고전 번역과는 관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번역 인재양성을 위해 각 서울, 전주 등에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본원의 졸업률은 최근 10년 간 63%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입학인원 50명 가운데 34명만이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다. 전주분원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해

서 최근 10년 간 졸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에 불과하다.

졸업자의 경우에도, 졸업이후 고전 번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고전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관련 교육활동을 하는 간접적인 활동을 제외하더라도, 소속이 불분명하거나 전혀 고전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32%나 차지했다.

현재 고전번역교육원 운영을 비롯한 번역인재양성사업에는 매년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사용되고 실정이다. 하지만 졸업률이 저조하고, 졸업 이후에도 고전 번역 관련 활동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전번역원에서는 졸업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고전번역자의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고, 학생 개개인이 대학원과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고전번역원은 우리의 주요 고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일반 국민들과 학계에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번역 작업을 위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전 번역전문가의 안정적인 진로를 확보한다면, 졸업률 개선과 졸업생의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전번역 인력 양성에 열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최순실 재산찾기’ 특위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 등을 위한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 위 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서는 최순실 일가의 해외 및 국내 은닉재산 추적을 비롯해 재산물수 특별법 제정, 권력자의 부정축재 등 적폐청산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과 소속 위원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최순실 재산환수 등 적폐청산은 우리당 대선공약 중의 하나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송성환 도의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촉구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이 단일요금체계 및 운행시간 등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18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늘고 있고, 전주·군산·익산 등 시·군별 이용요금 및 운행시간이 달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군간 단일한 요금체계 및 운행시간, 주말 공휴일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의 경우 직영체계방식을 도입해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과 효과성,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동배차 시스템을 적용한 직영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성환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대·폐차 기간이 다가오면서 국비지원과 광역단위 장애인 콜택시 지원서비스를 보다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우리 인생 시작할 적 처음 만난 가위를 만나 볼 수 있는 세계 유일 가위박물관

진안군 마이산 북부에 위치한 가위박물관은 가위라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소재로 한 박물관이며, 용담댐 수몰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철제가위 5점을 비롯하여 동,서양을 망라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가위 1,500여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새” 보러 가세!!!

제막식 일시
2017. 10. 21(토) 10:20 ~ 11:30

장소
- 제막식 : 진안가위박물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258)
- 홍보퍼포먼스 : 홍삼축제 행사장(광장)